

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대응을 위한 행정지시: No.2020-08

"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의료진 및 직원 급여 차등 지급"지침 관련

- 2020년 3월 14일,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로 부터 자국민과 여행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Organic Act of Guam 10조 19항에 의거하여 본인 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괌에 공중 보건 비상상태을 선포함.
- 질병관리본부(이하 CDC)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함.
- CDC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함.
- 2020년 3월 15일, 공중보건을 위한 목적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종 사하고 있는 현 괌 정부 산하 직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무행정국장 및 내각과 의 논하여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경력 및 직책과는 무관하게 일시적 으로 급여 차등 지급을 실시하기로 함.
- 괌 행정부 및 내각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, 생명, 공중보건,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감염자를 치료하기 위해 본인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위한 "코로나19 급여 차등 지급"정책을 실시하기로 함.
- 본 정책에 의거하여, 해당 직원들에게는 괌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부(GOSHA)에 의해 이미 정해진 위험직무 차등수당 외에 "코로나19 차등 수당이 임금의 백분율로 계산되어 차등 지 급됨.
- 해당 직원은 근무 시간 및/또는 위험 조건에 노출된 시간에 따라 차등 근무 수당을 받게 됨.
- 연방 노동부는 (보호장비로도 보호받지 못하는) 위험한 업무, 육체적 불편 및 수고를 포함하는 노동에 한에 급여를 추가 차등 지급함.
- 현재 미 의회는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 연방 직원에게도 추가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. 특히 의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 중이거나 대중에 자주 노출되는 연방 직원에게 위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중임.
-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여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괌 정부 직원들을 위한 급여 차 등 지급 정책을 실행하고자 함.
- 화상이나 원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정부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급여 차등 지급 정책을 실행하고자 함.
- 본 정책은 2020년 4월 5일 일요일부터 현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발효됨.
- 괌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위험수당 차등 지급을 전적으로 지지하며, 2020년 3월 14일부터 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괌 의회에 법적 제정을 요청함.
- 본 급여 차등 지급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생명, 공중보건,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감염자를 치료하기 위해 본인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임.



- 본 급여 차등 지급 정책은 공정 근로기준법(FLSA) 비/분류 서비스의 직급 및 계약상태에 상 관없이 모든 괌 정부 기관 직원에 적용됨.
- 이에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Organic Act of Guam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하기와 같은 지침을 지시함.

광 행정부 또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비/자치 기관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생명, 공중보건,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감염자를 치료하기 위해 본인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직원에게 "코로나19 대응 급여 차등 지급"정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함.

본 정책은 다음을 포함함.

- 1. 25% 급여 차등 지급: 코로나 19 감염자/집단과 직접 접촉하거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원에게 지급됨. 필수 임무를 수행하는 공중 안전/법 집행, 의료진 및 기타 직책이 해당됨.
- 2. 15% 급여 차등 지급: 코로나 19 감염자/집단과 직접 접촉할 수 있거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원에게 지급됨. 공중 서비스 및 생활보호 서비스 종사자가 해당됨.
- 3. 10% 급여 차등 지급: 코로나 19확산 방지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근무로 대처하지 않고, 기관장이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에게 지급.

주지사 및 부주지사 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는 직무(1,2)를 맡고 있지 않는 한 본 차등 수당 정책에서 제외됨. 본 정책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의 일부이며, 괌 행정부 또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비/자치 기관들은 해당 직원들을 선별하여 보고 해야함.

2020년 4월 5일 괌 하갓냐에서 공표

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